

### 불교여성개발원, 6차 108인 환영워크숍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3월 8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 및 6차 108인 환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불교여성개발원 2014년도 사업설명 및 여성불자 108인의 자긍심 고취 및 단합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을 비롯해 남상민 여성불자 108인회장,

조운선 여성가족부 장관, 이인자 초대원장(승만경연구회장), 김인숙 전위원장(국민대 재단이사), 노숙령 부위원장(중앙대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박 순 부위원장(한국미술협회 수석부이사장), 이연숙 부위원장(조계사 상임 고문, 태현초종교 이사장), 리영자 고문(한국불교연구회장) 등 임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3월 8일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 및 6차 108인 환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 새내기 학생여러분 템플스테이 가요

대불련, 3월 28~30일 충주 석종사서 템플스테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신경선, 이하 대불련)은 3월 28~30일 충주 석종사에서 새내기 및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 KBUF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템플, 소리명상, 수계법회, 공동체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대불련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형식적인 대학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스스로의 삶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새내기들은 대학생활과 불교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비는 4만원. (02)732-0239 이나는 기자

### '자비의 전화', 여성부 사업 선정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스님)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자비의 전화'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4년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 한해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도할 상담심리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에 나서게 된다. '자비의 전화'는 가정과 직장문제 등 일반인들의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불교상담심리사 전문교육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이 개설한 전화다. (02)737-1114 이나는 기자

불교상담개발원은 "본회 자비의 전화가 응모한 '아동 청소년 마음자람 멘토 양성 및 파견사업'이 올해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기자단도 있다. 2003년부터 활동해온 인터넷 기자단은 대관음사의 모든 행사를 취재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절주부'를 발행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나는 기자

### 벚꽃 날리는 날 법륜 스님과 경주가요

정토회, 4월 5~6일 20·30위향 경주 역사기행

정토회(법사 법륜)는 4월 5~6일 대학생 청년을 위한 '법륜 스님과 함께하는 2014 봄 경주역사기행'을 진행한다.

기념-반월성을 답사한다. 이밖에 법륜 스님과 이야기 마당 '청년이 질문하고 법륜 스님이 설하다'도 마련된다. 20~30대 청년 및 대학생은 참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jungto.org)를 참조하면 된다. (02)587-8911 이나는 기자

## 제11기 (사)안정사 영산재 교육원 불교의식 학인모집

안정사 소리 - 신라 최초 영남범패단 구성, 범음범패 훗소리, 질소리, 사성소리(사성에 의한 범패)

- (1) 초급반 : 사물(요령, 목탁, 태징, 법고) 다루는 법, 도량서, 쇧송, 각단예불, 의식
- (2) 중급반 : 상주권공, 신중작법, 대령관옥, 천도재(49재), 각종의식
- (3) 작법반 : 오공양작법, 다계작법, 요잡작법, 천수바라, 요잡바라, 관음바라, 사다라니바라
- (4) 고급반 : 운심계, 삼귀의작법(초급, 중급 수료자에 한함)

- 개강일시 : 2014년 3월 21일
- 교육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 오후 6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2장(상시 모집)

\* 본원은 종단과 승, 속 관계없는 교육도량으로써 수료증 수여, 매년 영산재 수록제, 예수제 법회 동참, 승려수계득도, 포교원 지도편의도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전통의식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전통사찰 안 정 사 범패강원 강주

영남범음범패 영산회 교육원장 | 사단법인 안정사 영산재 보존회 이사장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954-3

전화 055)649-6711 / 팩스 055)649-6712 / H·P 011-874-6775

# 사찰홍보 '절집기자'가 책임진다

## 사찰신도들 자원봉사로 기자활동 활발

"직장생활에 집안일 하느라 고단할 때도 있지만 신도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사찰의 소식과 부처님 법을 전한다는 생각에 즐겁게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열리는 행사나 소식을 신도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찰 기자단. 이들은 직접 사찰 내 행사를 취재해 사보나 인터넷을 통해 불자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조계사 미디어 홍보팀은 사찰 가운데 최초로 조직한 자체 기자단으로 20명의 취재 기자와 20명의 사진기자로 구성돼 있다. 조계사는 2004년 기자교육 강좌를 개설해 1기 수료생을 배출했고, 1기생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미디어팀을 조직해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취재해서 기사를 쓰는 기사파트와 사진 촬영을 하는 사진파트로 나누어 조계사보인 <가피>와 인터넷 <미디어 조계사>에 게재하고 있다. 사보 <가피>는 13000부가 발행돼 전국과 조계사에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인터넷 미디어 조계사는 하루 12000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조계사의 자부심을 갖게 했다.

팀원들은 50대가 주를 이루지만, 기자를 꿈꾸는 문예창작과 고등학생부터 공직에서 퇴직한 70대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사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미디어 조계사'란 글씨가 새겨진 주황색 단채복을 입고 이곳 저곳을 누비며 사진을 찍고 취재한다.

홍보팀은 매일 둘째 주 토요일에 사찰 한 달 일정을 놓고 국장 스님과 기획국 담당자, 그리고 미디어홍보팀장 등 각 파트장이 모여 편집회의를 한 뒤 기사를 정하고 담당 기자들에게 배분한다. 기자들이 매달 쓰는 원고는 2~3건이며, 인터넷은 자유롭게 취

재한 것을 기사화한다. 이들은 개인적인 업무 외에 조계사 기자단 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지만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김형량 조계사 미디어 홍보팀장은 "기자로 활동하면서 바쁘긴 하지만 부처님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하니 사찰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보람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월간지 '판전'에서 사보형태인 '봄은 판전'으로 전환한 봄은사는 13명의 '판전 기자단'과 사찰 소식을 전하고 있다. 대학생부터 현직 교수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판전 기자단은 봄은사의 주요행사와 신도들의 이야기를 취재해 신도들에게 전하고 있다.

봄은사는 4년 전부터 '봄은 미디어 교실'을 운영해 신도들을 대상으로 기사작성 및 사진 찍는 법 등을 교육해 기자로 양성하고 있으며, 기자단은 최근 3월 8일 한국경제신문 서화동 기자의 '글쓰는 방법' 실무교육을 받기도 했다.

창간호인 '봄은 판전' 2·3월호에는 주지 원학 스님을 비롯해 사찰 소식을 실은 '봄은 한마당', 신도들의 수행을 담은 '이달의 봄은 인물', 봄은가족 이야기 등이 실렸다.

불광사는 '불광사 미디어 팀'과 함께 불광사 소식을 불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10여 명의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범포소식, 범문정리를 비롯해 사찰의 크고 작은 행사들을 취재해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사찰에 그냥 다닐 때보다 기자로 활동하면서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이명숙 불광사 미디어팀장은 "스님의 법문을 녹취하고 정리하는 것도 업무 가운데 하나다. 불자들에게 내용을 잘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집중해서 듣게 돼 새롭게 공부 가 된다. 또한 팀원들이 찍는 사진과 소



조계사 미디어 홍보팀은 사찰 가운데 최초로 조직한 자체 기자단으로 20명의 취재기자과 20명의 사진기자로 구성돼 있다. 사진제공=조계사 미디어팀

식이 불광사의 기록물로 남는다는 생각을 하면 절로 신심이 나 열심히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토회에는 월간 '아난다' 기자단과 '스님의 하루' 기자단이 모여 활동하고 있다. 월간 '아난다'는 10여 명의 청년 정토회원들이 정토회 활동현장을 취재하고 그 소식을 월간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스님의 하루' 기자단은 정토회 국내·외 정토회 9개 지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9명이 곳곳을 누비는 범포 스님의 일과를 기사형식으로 정리해 매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이준길 정토회 기획홍보국 미디어부장은 "스님의 소식 외에도 각 법당의 소식을 전하는 '희망리포터'를 모집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화계사는 격월로 '화계법보'를 발행하고 있다. 화계사 신도회 가운데 '기획 홍보부' 팀이 자원봉사를 통해 사찰과 불교계 소식 및 스님 법문을 실고 있다. 4명의 자원봉사자가 꾸려나가는 사보지만 매월 4000부, 부처님오신날에는 1만 2천부를 발행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김지희 화계법보 편집부장은 "봉사자가 많지 않아 소식을 발행하는 데 힘겹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소식을 신도들과 일반인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난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은 뉴미디어실과 편집실을 운영하고 있다. 뉴미디어실은 1999년 국내 사찰 최초로 디지털 포교를 위해 설립된 부서로, 선원 신도들이 웹과 모바일을 아우르는 사이트 기획 운영을 비롯해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불법 홍보를 위한 디지털 지원 작업에 힘쓰고 있다. 한마음저널 편집실에서는 신도들이 생활 속 마음공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불법 홍보의 참다운 길을 열어가는 격월간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 저널'을 비롯해 어린이 저널 '마음꽃'을 발행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 기자단도 있다. 2003년부터 활동해온 인터넷 기자단은 대관음사의 모든 행사를 취재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절주부'를 발행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나는 기자

### '햇살 가득한 봄, 사찰의 맛을 즐겨요'

서울 봄은사, 4월 16일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

서울 봄은사(주지 원학)는 4월 16일 '햇살 가득한 봄, 사찰의 맛'을 주제로 '제2회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를 연다.

봄은사는 '제2회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를 통해 인스턴트 음식과 패스트푸드 등에 길들여진 바쁜 현대인들에게 건강식인 다양한 사찰의 맛을 소개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한 사찰음식 대중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제2회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는 사찰에서 사용하는 조리방법을 기본으로 만드는 건강도시락 경연대회로 직장인, 아이들, 체중조절을 위한 간편도시락, 건강도시락, 다이어트도시락 등 자유주제로 열린다. 별도의 참가비 없이 국내외의 슬로푸드와 건

강음식에 관심 많은 누구나(2인 1조)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접수기간은 3월 10~21일까지 봄은사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와 내려받아 작성하고 출품도시락 레시피 등을 작성한 후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 접수 이메일(gooddosirak@naver.com)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참가팀은 1시간 30분 동안 사전에 준비해온 재료를 이용하여 각 3인분씩 건강식 만들어 사찰요리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대상(150만원),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80만원), 장려상(50만원) 각 1팀 선정해 상금도 수여한다. (02) 3218-4836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포교원, 제7회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연수

3월 22일 한국문화연수원서...노인 명상 프로그램 연구개발 공모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의 지속적인 활동 독려와 강화를 위한 연수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원장)은 3월 22~23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7회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들간의 원활한 화합과 소통과 함께 지도능력 향상 및 자료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수 첫날에는 △청소년 명상지도과정 △주위집중나누기&불교놀이지도법 △불교어린이청소년지도사 간담회, 둘째 날에는 △마곡사 참배 및 아침예불 △어린이청소년포교기구 주요사업 소개 △청소년 심성개발 프로그램 사례발표 △명상과 함께 하는 감정조절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한편 포교원은 '실버시대 노인을 위한 명상과 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 용역을 공모한다.

공모자격은 노인을 위한 명상·상담 프로그램을 연구개발이 가능한 불교관계 연구소 및 불교명상상담 관련기관, 또는 불교명상분야 연구경력을 가진 스님과 재가자에 한해서 공모지원 할 수 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며 1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제안서 제출 기간은 3월 24일 12시까지이며 제출방법은 이메일(kmss59@buddhism.or.kr)또는 우편·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02)2011-1913 이나는 기자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6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쇧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3월 중
- ◆개강일시 :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